

보도시점 (지 면) 11.6(수) 석간
(인터넷) 11.6(수) 06:00

사우디 주요 협력 파트너와 연이은 양자면담 우리 기업의 원활한 중동 진출을 위한 광폭 행보

- 알 팔레 투자부 장관 면담 계기 중기부-투자부간 FCP* 연장을 통해 비반 2024에 참여하는 우리 12개 스타트업에 대한 사우디 정부의 전폭적 지원 협력 약속
 - * 프레임워크 협력 프로그램, 주로 사우디 정부가 구체적인 협력사항을 담기 위해 체결하는 양해각서(MOU)와 유사한 형태
- 알 까사비 상무부 장관과 양국간 긴밀한 파트너십 구축 약속

중소벤처기업부(이하 중기부) 오영주 장관은 BIBAN* 참석차 사우디 아라비아 방문을 계기로 4일(월), 5일(화) 이틀간 사우디 중소기업·스타트업 분야 주요 파트너들과의 연이은 양자면담을 통해 우리 기업의 원활한 사우디·중동지역 진출 협력을 위한 행보를 이어갔다.

* '17년부터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개최되는 중동 지역 최대 스타트업 포럼

먼저 오영주 장관은 사우디 핵심 부처와의 소통을 위한 첫 일정으로 4일(월) 알 팔레(Khalid bin Abdulaziz Al-Falih) 투자부 장관을 만나 양국 중소기업·스타트업 생태계 간의 시너지 창출 방안을 논의했다.

투자부는 사우디 현지 및 해외 투자 유치, 비즈니스 성장 지원, 국가 경제 발전 촉진을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주요 정부기관이다. 중기부와는 알 팔레 투자부 장관의 컴업2022 참석을 시작으로 양국 금융·투자·비즈니스 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오고 있다.

투자부는 작년 우리 중소벤처·스타트업의 사우디 진출 거점인 리야드 글로벌비즈니스센터(GBC)의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등 **한국 기업의 중동지역 정착을 위해**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. 오영주 장관은 사우디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과 리야드 GBC에 대한 투자부의 협조에 감사의 뜻을 전하며 앞으로도 양국간 **중소벤처분야 교류 동력이** 지속될 수 있도록 투자부의 협조를 당부했다.

특히, 이번 양 장관의 만남을 계기로 작년 중기부와 투자부가 체결했던 한국 중소벤처기업의 중동진출 협력을 위한 **프레임워크 협력 프로그램**(FCP, Framework Cooperation Program)의 **협약기간을 연장**하였고, 이례적으로 올해 ‘BIBAN 2024’에 참여한 스타트업 12개사에 대해서도 투자부가 적극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새로 담기며 우리 기업의 중동진출이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.

5일(화)에는 오영주 장관과 BIBAN2024의 주관 기관인 상무부 알 까사비(Majid bin Abdullah Al-Qasabi) 장관과의 회담이 이어졌다. 지난 7월 방한해 직접 오영주 장관을 BIBAN으로 초청하기도 했던 알 까사비 장관은 중기부의 이번 사우디 방문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, 앞으로도 양 부처간 협력이 더욱 공고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 했다.

오영주 장관은 금번 중기부의 BIBAN 참석부터 시작해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한-사우디 중소벤처위원회와 컴업2024의 사우디 사절단 참여 등 성공적인 협업을 통해 상무부와 양국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기를 희망한다고 화답했다.

오영주 장관은 “이번 사우디 중소벤처분야 주요 부처와의 만남을 계기로 보다 더 실질적인 상호 신뢰관계를 발전시켜나가 앞으로 양국 간 중소벤처분야의 교류와 공동 발전이 활성화되어 보다 많은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쓸 것이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글로벌성장정책관 국제통상협력과	책임자	과 장	박수민 (044-204-7550)
		담당자	사무관	정미라 (044-204-7553)
				주무관

